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발행일: 2017년 1월 5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263 (괴정동) TEL:051-466-8761, FAX:051-206-8761

ds5ean@naver.com H·P: 010-6504-6510

계간26호 발행자 편집자: 이상훈 /부산광역시동래구중앙대로1301번길12. A동203호 (온천3동.부원A) /신고번호: 동래 바00001/신고일 2012,05.18./ 인쇄(주)동아인업 (051)807-0600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답을 생각하고 3면에

독도소식지 26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는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으려는 일념에서 피 같은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전달합시다. 독도를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지켜야합니다. 독도소식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 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창간 호부터 전부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 일 중에 영토문제 보다 더 큰 문제가 있나요?



독도 이상훈 회장

애국자 여러분 나라가 엉망 되면 안 되지요? 아 래내용 중 나라가 가장 엉 망 되는 것이 어느 것인가 요? ① 월드컵축구에 지는 것 ② 박근혜 대통령 하야 해야 하는 것 ③ 독도를 일본에 빼기는 것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몇 번 인가요? 나라 일

중에 영토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 있나요? 말 해보시요! 월드컵축구 응원과 박근혜 대통령하야 요구에 100만명 이상 모이는 위대한 국민들이다. 일본에게 독도 70% 빼앗겨다. 지키려 100만명 이 상 모이자. 누가 대통령이든 100만영 이상 모여서 독도 개발해서 20가구정도 주민이 살도록 만들라 고 요구를 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살아야 독도가 지켜진다. 독도를 빼기는 것은 나라를 빼기는 거 다. 나라 못 지키면 식민지고 위안부. 징용 갈지 모 릅니다. 그러나 독도 말하면 답도 못 하는 사람들 이 야당이 여당이 잘 한다 못 한다. 서로 싸움 되는 토론은 많다. 독도를 빼기면 안 된다는 생각만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하면 독도를 버리는 것이다. 정 부는 일본 눈치 본다고 독도개발도 못 합니다. 우리 가 촛불 집회처럼 요구하면 됩니다. 정부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선착순 20가구 정도 들어가 살 면 독도는 지켜진다. 지금 이라도 살도록 만듭시다. 마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라도 관심 을 가지고 노력 합시다. 방법을 모르면 회원가입하 세요.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질문 이 있으면 문자주시고 010-6504-6510 독도에 사 람 살게 하자는 서명을 했습니까? 우측에는 독도 를 빼앗긴 자료가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나 박근혜 대통령 하야문제보다 더 큰 독도문제200만명 모여 서 평화적 시위를 합시다.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상훈

후원금 주신 분

권준서부산시기장군일광면29,000원강계원서울시송파구문정동올림픽훼미리10,000원최영철부산시해운대구 반여2동40,000원

보면 알고 안 보면 모릅니다. 70% 넘어간 독도 지킵시다.

울릉도와 오키도 중간이 해양 경계선이 되어야 한다. 독도를 포함해서 중간수역(일본은공동수역이라함)이 되었다.독도주변 수역을 웃리 마음데로 못한다.독도의 주권이 일부 넘어간 것이다.우리는 방심 말고 동독원 영유권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독도연구와 자유입도 주거자유하고 행양경계를 확실히 두어야 한다.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15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협정은 일본의 다께시마 주장을 배제하지 일본은 이 협정을 일본영유권주장 근거로 삼울수 o http://dokdomk.com C 010-6504-6510 业方核界级心路积 푸른부분안에는 경계선이 과 붉은선은 가상선이다. 경계선이 없다 청선 상선이다. 붉은선이 **271/355 日の**基 경선이 되어야 목도주권회복임 医星 동관리수역 독도주변(12해리외)에 일본이● 고기를 잡아도 제지를 못 한다 붉은첫 안에 ^{2기도} 우리만 조업 어업협정으로 독도주변수역이 공동이다. 주권 조업을 해야한다

위 그림을 보면 푸른 부분 안에 독 도가 있다. 푸른 부분은 한국 일본 공 동수역이다. 독도라 하면 섬과 배타 적 경제수역이 모두 독도다. 독도 값 을 100원으로 본다면 섬은 작으니 20 원 바다는 넓으니 80원으로 본다. 넒 은 바다가 공동이니 40% 빼앗긴 것 으로 생각한다. 우측 그림을 보면 일 본해에 다케시마로 표시되고 있다.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대 다수 지도이 다. 국제인식도 일본 땅으로 생각하 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본이 독도 를 불법 점거 했다는 말을 믿고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국제인식과 지도 를 보는 사람은 다케시마로 생각하게 된다. 지도가 등기처럼 권리가 있다 면 다 빼앗긴 것이다. 권리가 없기에 30% 빼앗긴 것으로 본다. 종합적으 로70% 빼앗긴 것으로 생각한다. 독 도를 지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일본은 국제재판으로 독도를 뺏으려고 국제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땅을 재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 극우파들이 자기네 땅 찾겠다고 독도로 밀고 들어 올 날이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가 못 오게 막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면 세계인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양보를 못하니 평화적 방법은 국재재판 뿐일 것으로 본다.

국제재판에 이기려면 1. 독도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2. 독도에 주민이 많이 살아야 한다. 3. 독도에 주민이 많이 살아야 한다. 3. 독도에 주민이 돈을 벌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고 세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4. 옛날에 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를 국가 최고 유공자로 모셔



야 한다. 5. 독도 바다는 절반의 주권이다. 어업협정 다시 해서 바다를 차자야 한다. 위의 운동을 하기 위하여 독도사수연합회에서는 서명운동과 독도행사와 본지를 발간하며 독도전시와 독도홍보와 기타 독도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동포들은 모두가 독도주인이다.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못지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영토를 지키려 하지 않는 국민은 영토를 빼앗길 수도 있다. 일본에게 빼앗기면 과거처럼 위안부나 징용을 가게 될지 알 수는 없다. 당신은 나라의 주인이다.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함께 활동 하는 것과 후원을 하는 것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회원가입 하시고 함께 나라를 지킵시다.

비영리 단체 : 독도사수연합회 네이버 독도사수대 구독신청: TEL,051-466-8761 FAX,051-206-8761 HP,010-6504-6510













예술단들이 찬조출연을 해 주시고 애국시민들이 참석 하시고 감사합니다. 2017년 2월22일은 일본 독도 날 행사를 묵인 안 하는 행사를 합니다.





비영리 단체 : 독도사수연합회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독도문제의 위기와 기회 11편

다하연구소 RYEO HAE INSTITUTE 麗海研究所 김영구 교수의 해양법포럼

양법재판소(ITLOS)의 창설로 분쟁에 관한 강제적 해결(a compulsory settlement)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협약의 당사국들은 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원칙적으로"일방 당사자의 요청만으로 제3자적, 사법적 절차에 강제로 들어가게 된다.(286조) 물론 이러한 강제적 분쟁해결의 원칙은 상당히 포괄적인 적용의 제한(limitation on applicability) 과 선택적 제외(optional exception)를 전제로 하고 있다.(297조. 298조)

다. 일본의 ITLOS 에의 제소

F

일본 영유주장이 법적인 정당성이 유지된다는 논리 를 제시하고, 피상적으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합 법성과 유효성을 맹신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의 동조 를 얻어내는 노력을 한다면 일본의 일방적 제소 행위 가 법적 정당성과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받아드려 질 수 있을까 한국 정부가 그 때까지 「1%5년 한일기본관계 조약」과 「1998년 한일어업협정」의 잘못된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실사구시적 노력에 아무런 진전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일본의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얻어 'CJ 재 판관들의 법적 관심의 동향'을 일본에 유리하게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제297조의 포괄적 "적용 제한 (limitation on applicability)"의 대상 ①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행사 ②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연안국 권리 및 재량권 행사 ③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 물자원 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행사 제298조의 포괄적인 "선택적 제외(optional exception)"의 대상 ① 해양경계획정 및 역사적 만(灣)에 관련된 분쟁 ②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③ 유엔 안보리 권한행사에 관 한 분쟁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인 배제와 제한의 적용 여부 판단은 결국 재판기관이 하게 되므로 이는 강제

적 절차(compulsory procedures)가 되는 것이다. 그 리고 선택적으로 제외되거나 적용이 제한되는 사안이 라도 분쟁 당사국이 합의만 하면 다시 강제적 절차로 돌아온다.(299조)) 물론 당사국들은 이들 강제적 절차 를 배제하는 선언 (강제적 절차의 선택적 제외 선언)12 을 할 수 있으므로 ITLOS의 강제절차도 궁극적으로 는 당사국의 임의적 의사에 종속되는 것을 벗어날 수 는 없다. 그리고 이런 강제관할권 도입을 위한 제도들 은 어디까지나 ITLOS의 강제절차이므로 ICJ의 절차 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2006년 독도 인근수역에 대한 수로탐사문제로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 는 사태를 야기하던 중, 우리 한국은 동년 4월 18일, 유 엔해양법 협약 제2%조에 의거『강제적 절차의 선택적 제외 선언』을 하였다. 그리하여 협약 제15장 제2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적 절차들 중에서, 해양경계획정,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 어업에 관한 법 집행 활동, 및 유엔 안보리의 권한 수행관련 분쟁에 대해강제절차의 적용이 배제되게 되었다. 일본은 독도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분쟁을 일방적으로 ITLOS에 제소함으로써 한국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사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까 유엔 해양법 협약 제297조 제1항, 포괄적인 "적 용 제한(limitation onapplicability)"의 규정에 의거해 서 영유권에 관한 분쟁은 강제적 절차에 원초적으로 적 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국 정부가 2006 년 4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강제적 절차의 선택 적 제외 선언』과는 관계없이, 일본은 독도영유권에 관 한 한일간의 분쟁을 일방적으로 ITLOS에 제소함으로 써 한국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사범적 절차를 개시할 수 는 없다고 본다. 필리핀이 중국을 대상으로 방적으로 제 기한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사건을 위한 중재 재판소가 지난 7월 16일 헤이그에서 정식으로 구성되었다는 보도

독도주인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뺏으려는 것을 알면서 독도에 무관심은 독도를 버리는 것이다. 지금 까지 몰랐고 지금 알았다면 이제부터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하십시오. 할 줄 모른다면 회원이 되시고 시간이 없다면 회비만 내든지 후원금을 내시면 독도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활동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비. 후원,활동 전부다 하시는 분은 더 큰 독도 지킴이가 됩니다.

010-6504-6510. ds5ean@naver.com

월드컵 축구나 박근혜 탄핵처럼 2백만명 모이면 서명용지 내용이 이루어진다. 2백만명 모이자. 2천만명이 서명하면 정부가 안 할 수 없다. 내가 13만명 받았다. 나와 같은 사람 200명이면 독도정책은 바꿀 수 있다. 서명운동 하세요. (이상훈)

가 있다. 이 것을 보고 "중국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남 중국해 분쟁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중재재판 절 차가 결국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 된다."라고 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이 강제적 분쟁해 결 절차를 도입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분명해지는 순간이다."라고 감탄하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재판절 차에 관해서 양 당사국의 합의가 없을 때에 강제절차는 중재재판소에 회부되게 되어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중 재재판소가 구성된 것일 뿐, 재판관할권과 소송 적격에 관한 판단을 그 중재재판소가 함으로써 사법적 절차는 비로서 시작될 수 있는 바, 피제소 국가의 동의나 출석 이 없이는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관련된 분쟁을 강제 절차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만일 그 남중국해 분쟁이 중국과 필리핀 양국의 영유권 귀속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 중재재판소는 소송 부적격 및 '재판관할권 없음'의 판단으로 결론을 질수 밖에 없 을 것이다.(끝) 홈피에서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드립니다

증세을

OJJ

머

引

사명

보존되고 100명이상

4

서명받은분 명단은 박물관에 열

덖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편 47825 田0 010-6504-6510 ¥ 주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독도이상훈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홍보해 국회의장께 청원 주거자유를 보장해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지를 로1301번길12. A동203호(온천동부원A) 네이버 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doinkorea 관광수입과 함께 국내 · 외에 日 4 工人 국가최고 유공자로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받은 보장과 독도의 대통령과 업협정을 파기하여 사항을 KH H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ম্ 보낼 곳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 5. 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 4. 독도를 지킨 독도 의용수비 (아래 서명인은 아래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西0 40 佐 8 19 7 15 16 12 13 2 9 ∞ 6 2 3 4

비영리 단체 : 독도사수연합회

구독신청: TEL,051-466-8761 FAX,051-206-8761 HP,010-6504-6510

오늘도 독도를 생각하며…



임기병 교수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지 넓지만 그 역사를 살펴보면 질 곡의 역사였다. 민초들은 배고 픔과 전쟁의 난리에 하루도 편 히 잘 수 없었다. 그 민초들의 아픔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 겠는가만, 오늘날 우리가 배불 리 먹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데 정신력은 더 쇠퇴해 가는 데... 걱정이 앞선다. 예로부터 농부의 유형은 세 가 지가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상농(上農)이요 상농 은 밭에 풀이 나기도 전에 부지런히 잡초가 날 여지 를 없애서 근원부터 막아버린다. 자연히 농사는 풍 년이 되고 그 가정은 아무런 문제없이 일생을 보낸 다. 두번째 유형은 중농(中農)이다. 중농은 잡초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제거한다. 세번째 유형은 잡초 가 번성하여 농작물이 죽게 생겨도 잡초를 제거하 지 않는다. 결국 농사는 엉망이 되고 집안 식구들 모 두가 어렵게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국가에도 세 가지 국가가 있다. 상류국가(上流國 家), 중류국가(中流國家), 하류국가(下流國家).... 과연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자문해 보고 싶다. 상농(上農), 중농(中農), 하농(下農)의 형태를 정리하자면 그러할 진대, 우리나라를 농부로 치면 어디에 속하는가? 우리는 이미 100년전 하류국가 (下流國家)의 쓴맛을 보았다. 하류국가에 사는 국민 들은 고달픈 삶을 살아간다.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 고, 조직이 모여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 신체가 되듯이, 대한민국도 개개인이 모여 국가를 구성하 는 것이다. 하나의 세포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암 세포가 되면) 조직전체를 병들게 하고 결국 신체 전 체를 죽게 한다. 국가도 개개인 국민들의 정신력이 그 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든다. 한 사람 한사람이 상 농(上農)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류 국가가 될 수 있다. "독도"를 지키는 일은 앞으로 우 리나라가 상류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 다. 하루에 한 번씩 상농(上農)의 마음으로 "독도" 를 생각하자!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 "독도"가 항상 자리 잡고 있는 한 "독도"는 영원히 우리 땅이 될 것

독도사수연합회 자문위원 임기병(경북대 원예과학과)

우리나라 국민들도 상류농가의 자질을 갖추자. 상류국가를 만들자. 이기심. 투기심. 시기심을 버리면 될 것이다. 독도 이상훈

해피위시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지키활동 MOU

김대환 승인 2016.01.20 1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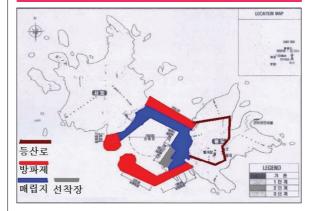
▲19일 해피위시연구소 이수영 소장과 독도사수연한회 한채훈 경기도지회회장이 독도를 알리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회공헌단체 해피위시연구소와 독도사수연합회가 20일 바른 역사관 확산과 독도지키기 활동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해피위시연구소 중앙연구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수영 해피위시연구 대표소장과 한채훈 독도사수연합회 경기도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피위시연구소는 3천여명의 젊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며, 독도사수연합회 경기도지회는 독도 지키기 온라인 서명방 등 돈도와 관련한 역사와 독도뉴스 등을 전하

고 있다. 이들 단체는 업무협약에서 전문적인 독도 지키기 캠페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력증진과 청 년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복지에 대한 정보교류, 청 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육훈련 프로그램 개 발. 역사바로알기 캠페인 및 자원봉사활동 전개, 기 타 활동에 대한 상호 협조 및 홍보활동을 함께 해나 가기로 했다. 이수영 소장은 "정부의 독단적인 위 안부 협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으로 얼룩진 대 한민국을 바로잡고, 독도지키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청년 회원들의 권유로 업무협약을 체결하 게 됐다"며 "청년이 앞장서는 독도지키기, 역사바 로알기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해 참여해나가겠 다"고 밝혔다. 한채훈 지회장도 "독도사수연합회가 이어온 전통과 역사성 그리고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땅 독도를 지키는 일에 대학생과 청년들이 원 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 다"고 인사했다. 김대환 keunfire@gmail.com 〈저 작권자 ⓒ 톱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도사수연합회 한채훈 경기도 지회장 활동을 높이 평가 합니다. 회장인 저에게 이야기 하길레 하 라고 했습니다. 독도사수연합회장 독도 이상훈

독도 개발 안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큰 섬이 두 개다. 두섬의 거리는 약 170m이다. 붉은 것을 방파제로 하고 회색은 선착장이다. 푸른 부분은 매립을 해서 상업지를 만들어 독도주민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서살게 하자는 개발안이다. 지금은 독도에 체류시간이 30분이다. 4~5시간 체류를 할 수 있게 하면 독도주민들이 장사를 할 수 있다. 독도선착장을 만드신강향희 회장의 방파제 개발안을 독도 이상훈 보강해서 색칠을 한 것이다.

- 1. 방파제를 만들면 파도가 있어도 접안 된다.
- 2. 등산로를 만들어 동도정상에 관광객이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내려오는 길은 북쪽 방파제쪽에 별 도로 만든다.
- 3. 독도를 어업전진기지 등으로 사용해도 좋다.
- 4. 서도에 10가구동도에 10가구정도 살게 한다.
- 5. 학교가 없으니 50~60대가 살면 된다.
- 6. 서도 어민숙소까지 개방하고 나머지는 생태계 보존한다.
- 7. 일본은 국제재판으로 독도를 뺏으려하니 개발 하여 사람이 살면 국제 법으로 유리하다.

나라가 힘이 있고 정부가 잘 하면 국민들이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 노력하자!

일본은 2월22일 "독도의 날" 기념식 한다. 우리는 독도 탐내는 일본을 규탄하자.

일본 "독도 날" 규탄대회

2월22일 수요일 14시 부산초량 정발장군동상 참여 할 단체는 1주일 전까지 연락 바람니다. 연락처 010-6504-6510 ds5ean@naver.com

독도소식지 26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본회는 독도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랍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인터넷 활동을 해 주시거나 회비를 내시거나 서명운동을 해주시는 것 힘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하시면 애국 입니다. 일본이 뺏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 마음으로는 못 지킨 다, 독도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전부를 볼 수 있습니 다. 이 독도소식지를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다른 분께 전해 주십시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 후원하실분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안녕하세요.

나라를 못 지키면 또 다시 식민지가될 수도있습니다. 과거의 식민지 시대를 우리역사는 말 해줍니다. 징용과 위안부. 공출. 제도 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 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우측 가입원서를 보시고 가입 해 주십시오.

>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 상 훈

독도사수연합회 회원가입원서 http://dokdomk.com (접수번호:독사연 생년월일 성별 성 명 이 메 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본인은 독도사수연합회 회원으로 나라를 위하여 독도를 지키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가입원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성명 : 독도사수연합회 귀하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263 (괴정동) 우편번호 : 49384 TEL: 051-466-8761, FAX: 051-206-8761, HP: 010-6504-6510, ds5ean@naver.com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 독도사수연합회